

통합 요구 분석 및 교양교육과정 개편 연구

남진숙* · 고은선**

1. 서론
2. 선행연구 고찰
3. 연구방법
4. 연구결과
5. 적용 및 결론

■ 국문요약

본 연구는 대학 교양교육과정 개편에 앞서 학생, 교원, 기업체의 통합 요구도 조사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적용하여 D대학교의 교양교육과정을 개편한 결과이다.

교양교육과정 개편을 위해 선행되었던 연구도구는 학생의 경우 총 13항목, 교원의 경우 총 12항목, 기업체의 경우 총 5항목을 면밀히 수요조사하였다. 그 결과, 첫째 교육목표의 경우 교원은 현재 설정된 교양교육목표가 미래사회의 변화에 학생들의 능력을 함양하는 데 더 적합하다고 인식한 반면, 기업체의 경우 개편 교육목표가 더 적합하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현재 교육과정 편성체계는 교원이 학생보다 더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기업체

* 주저자,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부교수, jindog1@hanmail.net

** 교신저자,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연구초빙교수, kes0720@dongguk.edu

의 경우 ‘인성덕목 관련 영역’을 교육과정 편성 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육과정 이수체계에 대해 학생은 교양 필수 학점의 축소, 유연화사제도인 ‘집중이수제’를 선호하였다. 넷째, 핵심역량의 경우 ‘의사소통역량’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교양교육과정 개편 시 학생은 ‘공통교양 편성 및 이수체계’, 교원은 ‘교육목표’를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나타났다. 기업체에 입사한 신입 사원의 직업기초역량은 팀워크 능력, 리더십 역량, 고객서비스능력 등을 포함한 ‘대인관계역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양교육과정 개편 방향에 있어 어느 한 주체의 의견에 편중되지 않고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실제 교양교육과정 개편에 있어 D대학교의 경우, 통합 요구도 조사에서 도출된 결과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제어 ● 교양교육 요구도 조사, 교양교육 목표, 교양교육 과정 편성 및 이수, 핵심역량, 직업기초역량

1. 서론

급변하는 시대와 사회적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문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과제 해결을 위해 논리적으로 추론하며, 준거에 비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가장 타당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이 특히 강조된다. 따라서 기존과 다른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수불가결한 시대이다. 특히 다가올 미래에 대처하기 위한 대학 교육은 어떤 교육적 목표를 갖고,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학생들의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과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등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 대학 교육은 고전적인 방법의 단일 전공으로는 급변하는 시대를 따라갈 수 없으며, 미래를 준비하기에도 역부족이다. 따라서 많은 대학들이 부전공, 복수 전공, 융합전공 등을 통하여 다양한 학문의 영역을 접할 수 있도록, 대학 교육의 환경적 여건을 외적으로 일단 확장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단일 전공이나 2~3개의 전공을 이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전공에 한하여 한정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즉 전공교육이 갖는 내용적, 시대적, 한계점 등이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에 반하여 교양교육은 내·외적인 확장을 해나가는 데 일차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매우 탄력성이 있는 교육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교양교육은 보편성, 종합성, 학제성, 핵심성, 횡단성을 담고 있는 통합 교육으로서, 지적 연결 지평을 확장하는 횡단적 융합학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가치를 고양하고 고등 사고력을 함양하며, 사회와 세계를 폭넓게 이해하고 문제를 발견하며 해법을 탐색한다. 포스트휴먼 시대, 코로나19시대 이후에 격변하는 학문적, 교육적 지형 변화 속에 전통적인 분과학문으로서의 기초학문은 약화되기 때문에 교양교육의 필요성은 절감하게 된다(도승연, 2020, 9). 이는 대학 교육에서 교양교육의 중요성이 더 강화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교양교육은 모든 학문의 기본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제공해준다. 게다가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 교양교육(liberal arts education, general education)은 모든 학생에게 실시되는 폭넓은 지식을 간학문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인성 및 기본 소양과 지적 능력을 함양하는 일반교육이자 자유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융복합 교육과정의 강화로 인해 학문간 연계와 교류를 증진하는 학과들이 지나치게 세분화하고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학문 간 융합이 장려되고 있는 분위이기도 하다(윤유진, 2020, 313). 따라서 대학의 교양기초교육이란 대학 교육 전반에 필요한 기본적 지식 및 자율적 학구 능력의 함양을 포함하여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세계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는데 기여하는 교육으로 학업 분야의 다양한 전문성을 넘어서서 모든 학생들에게 필요한 보편적 교육'(한국교양기초교육원, 교양교육표준안: 대학의 교양

기초교육의 표준모형)을 말하게 된다. 이는 학문적 영역을 구분하여 경계하거나 특정 학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열린 학문으로서의 다양한 학문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다.

교양교육은 시대를 반영하며, 교육의 현주소를 반영한다. 지속적으로 변화, 확장, 심화하면서 대학의 교양교육의 변모 과정을 보여주었다. 그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대학의 교양교육 과정이며, 더 구체적으로 교양교육 교과목 개편 및 개발이 그 일차적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와 연결되기까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교수자, 학습자, 기업체)라는 세 주체의 요구가 어떤 것인가 하는 점을 미리 알아야 효과적인 교육과정 개편과 새로운 교양교육 교과목 개발까지 연결된다는 점이다.

교양교육을 가르치는 교수자가 기본적으로 교양교육에 대한 교육목표를 어떻게 잡고 교과목을 구성할 때 무엇을 고려하는지, 또 교육을 받을 주체인 학습자가 원하는 학문은 어떤 것인지,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해 아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하는지, 기업이 바라는 인재의 역량은 어떤 것인지, 어떤 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기업체의 직원으로 원하는지 등 그 수요를 알아야 한다. 이 삼박자가 맞았을 때, 미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적어도 미래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위한 교육을 하고, 교육 받은 인재를 기업이 알아보고 직접적인 채용과도 연결될 수 있다. 이 중 어느 하나의 요구가 강해질 때, 균형있는 교양교육은 깨지기 쉽다. 가령, 기업의 입맛에 맞는 교육에만 치중하다보면 교양교육이 직업 양성에 필요한 도구적 역할만 하게 되고, 학생들의 요구에 맞게만 한다면 교육의 목표와 질, 학습자의 역량 개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 교수자의 요구에만 치중한다면 교수자가 현실과 연결된 교양교육의 맥을 잘 짚어 내지 못하고, 학습자나 기업체의 현실적 요구를 외면할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중점 내용은 대학의 교양교육과정 개

1) 여기서 기업체는 단순히 기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사회를 읽어내는 하나의 상징적이며, 기능적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편에 앞서, ‘교수자, 학습자, 기업체’, 세 주체의 통합 요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교양교육과정 개편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그 적용의 실제를, D대학교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요구 조사의 필요성 및 중요성, 그리고 요구 조사가 지닌 의미와 교양교육과정 개편 및 실제 교과목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고찰

교양교육과정 개편 및 교과목 개발 관련 연구는 그동안 교양교육에서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대학의 인재상과 핵심역량을 설정하고 이를 교양교육 과정에 적용한 이효성 외(2020), 박혜정(2018), 변상출 외(2020)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대부분 대학이 교양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게 교양체제와 과목, 시수, 핵심역량 등과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고민한 결과로 일반적인 교양교육과정 개편의 내용이다. 그러나 교양교육과정 개편이 교육의 수요자와 교수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서 아무리 좋은 인재상과 핵심역량이 있더라도, 그것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교육적 효과를 얻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교양교육과정 개편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나 요구도 조사 등은 교양교육과정 개편에 있어 꾸준히 병행되어온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존에 진행된 연구 대상을 살펴보면,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 만족도나 요구도 조사, 학생과 교원을 중심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 중 특정 과목에 대한 만족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교양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만족도와 요구도 조사가 연관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최근의 몇 가지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교수자와 학습자 중심에 대한 요구도 조사에서, 신철균 외(2020)은 ‘학생과 교원간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요구도 조사를 통하여, 교양교육 만족도 조사, 교양교육 목표 설정, 학점 및 선호하는 교양 수업 방식, 교과목 선택 시 고려되는 사항 등으로 학생과 교원의 인식과 요구도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A대학의 경

우 교양교육 목표가 건학이념, 대학의 교육목표, 인재상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학생 중심의 만족도 및 요구도 조사에서, 윤유진(2020)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양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교양교육에 대한 경험과 만족도 및 요구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수요자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조사로 학습자에 대한 요구도가 자세히 분석되어 있지만,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어떤 교과목을 구체적으로 필요로 하는지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김남희 외(2018)는 대학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및 만족도, 학습성과에 대한 조사를 중심으로 하여 교양교육의 전반적인 개선을 주장하였다. 이밖에도 백평구(2012)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양교육 만족도 조사 및 교육적 경험, 학습성과에 대한 인식 등의 여러 항목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교양교육의 다양화와 다각화 등 교양교육 개선을 강조하며, 학생의 교육적 경험과 교육 만족 및 학습성과에 대한 인식이 연결되는 관계는 교육교육과정에 대한 질적 수준 분석의 하나의 접근 방식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기존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점은 교양교육의 인식 및 만족도 그리고 학습성과에 대한 연구가 학생 또는 교수를 중심으로 진행하다 보니, 이것이 실질적으로 전체 교육목표, 그리고 교양교육목표와 어떻게 맞물려 교양교육과정이 개편되고 교과목이 개발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요구도 대상을 확장하였으며, 요구도 조사를 통하여 전체 교육목표 설정, 핵심역량 및 교과목 개발에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연구에서 알 수 있듯, 교수자, 학습자, 기업체의 세 주체에 대한 통합 요구를 조사하여 그것을 교양교육과정 개편에 반영하거나 교과목 설계에 반영한 예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 세 주체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 조사를 일차적으로 진행하고 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 이것이 실제 D대학교 교양교육과정 개편 및 교과목 개발에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본 연구는 전자에 더 많은 중심을 둔 연구이고 후자는 그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적용된 사례를 소

개하는 차원에서 이 논문을 전개해나가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요구도 대상을 확장하였으며, 요구도 조사를 통하여 전체 교육목표, 교양교육목표, 더 나아가 핵심역량 및 교과목 개발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연구에서 알 수 있듯, 교수자, 학습자, 기업체의 세 주체에 대한 통합 요구를 조사하여 그것을 교양교육과정 개편에 반영하거나 교과목 설계에 반영한 예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 세 주제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 조사를 일차적으로 진행하고 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 이것이 실제 D대학교 교양교육과정 개편 및 교과목 개발에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본 연구는 전자에 더 많은 중심을 둔 연구이고 후자는 그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적용된 사례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이 논문을 전개해나가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통합 요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양교육의 개편 방향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편에 적용하기 위해 학생과 교원뿐만 아니라 기업체의 요구까지 반영하였다. 이에 교양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과 담당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2020.5.14.~5.22.까지 1주일간 실시하였고, 기업체는 수도권 대기업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력자를 대상으로 2020.9.24.~10.20.까지 약 4주에 걸쳐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설문조사의 응답자는 학생 606명, 교원 82명, 기업체 110명으로 총 798명이다. 대상자별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항목은 학생의 경우 성별, 학년, 소속 계열, 교원의 경우 성별, 직급으로 구분하고, 기업체의 경우는 성별, 업종, 계열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표 1> 연구대상

구분		사례 수(명)	비율(%)	
학생	성별	남자	228	37.6
		여자	378	62.4
	학년	1학년	264	43.6
		2학년	177	29.2
		3학년	97	16.0
		4학년	68	11.2
	소속계열	인문사회	296	48.8
		자연과학	135	22.3
		공학	109	18.0
		예체능	66	10.9
계		606	100.0	
교원	성별	남자	48	64.0
		여자	27	36.0
	직급	전임교원	26	34.7
		비전임교원	16	21.3
		강사	33	44.0
계		75	100.0	
산업체	성별	남자	87	79.1
		여자	23	20.9
	업종	제조업	68	61.8
		금융보험업	4	3.6
		건설·건축	17	15.5
		정보통신	4	3.6
		기타	17	15.5
	경력	4년 이하	23	20.9
		5~8년	24	21.8
		9년 이상	63	57.3
계		110	100.0	

3.2 연구도구

본 연구는 교양교육과정 개편 방향을 도출하고 적용하기 위해 통합(학생,

교원, 기업체)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생과 교원의 경우는 신철균·변혜영·어성민·김성목(2020) 연구와 D대학의 교육목표, 교육과정, 인재상, 핵심역량 등을 고려하여 문항의 영역 및 요소를 도출하였고, 기업체의 경우는 김종규·원만희(2018) 연구를 참고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현장의 시의적절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도출된 설문문항의 내용타당도(CVR) 검증은 교양 담당교원 5인과 행정직원 4인을 전문가집단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9인 경우 Lawshe (1975)의 내용타당도 기준값의 최솟값이 .78보다 낮게 나온 경우는 삭제하여 최종 교육목표의 적합성, 교육과정 편성 체계, 교육과정 이수 체계, 핵심역량, 기타 등 5영역으로 재구성하였다.

<표 2> 설문문항 내용타당도 검증

영역	항목	CVR	비고
교육목표	인재상과 교육목표	.56	삭제
	기존 교양 교육목표의 적합성	.90	
	개편 교양 교육목표의 적합성	1.0	
교육과정 편성	공통교양 교과목의 다양성	1.0	
	공통교양 교과목 편성의 적합성	.56	삭제
	공통교양 목표와 교과목의 적합성	.90	
	미래사회에 적응 가능한 교육과정 영역별 필요성	.90	
교육과정 이수	필수 이수학점의 적절성	.90	
	영어 이수학점의 축소	1.0	
	단과대학별 교양필수 교과목 지정 이수	1.0	
	공통교양 집중이수 도입	.90	
핵심역량	핵심역량별 중요도	1.0	
	핵심역량 함양에 공통교양 교과목의 적합성	.90	
	신입사원의 핵심역량별 만족도	1.0	
기타	교양교육과정 개편시 가장 고려해야할 사항	1.0	
	개선사항 의견 기술	1.0	
	4차산업혁명시대 신입사원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요구	.90	

조사대상별로 살펴보면, 학생과 교원의 경우 교양교육목표의 적합성, 교양필수 영역인 공통교양 교과목 편성의 다양성, 공통교양 목표와 교과목 편성의 적합성, 교양필수 이수학점의 적절성(학생만실시), 영어 이수학점 축소 필요성(학생만실시), 단과대학별 교양필수 교과목 지정 이수, 공통교양 집중이수제 도입, 핵심역량별 중요도, 핵심역량 함양에 공통교양 적합성 여부, 교양교육과정 개편시 가장 고려해야할 점, 개선사항 의견 기술 등으로 구성하였다. 기업체의 경우 교양교육목표의 적합성, 미래사회에 적응 가능한 교양교육과정 영역별 필요성, 핵심역량별 중요도, 입사한 신입사원의 핵심역량별 만족도, 미래사회의 업무에 필요한 직업기초역량 중요도 등으로 구성하였다.

<표 3> 연구도구

영역	항목	대상		
		학생	교원	산업체
교육목표	기존 교양 교육목표의 적합성	○	○	
	개편 교양 교육목표의 적합성	○	○	○
교육과정 편성	공통교양 교과목의 다양성	○	○	
	교육목표와 공통교양 교과목의 적합성	○	○	
	사회변화에 적응 가능한 교육과정 영역별 필요성			○
교육과정 이수	필수 이수학점의 적절성	○		
	영어 이수학점의 축소	○		
	단과대학별 교양필수 교과목 지정 이수	○	○	
	공통교양 집중이수제 도입	○	○	
핵심역량	핵심역량별 중요도	○	○	○
	핵심역량 함양에 공통교양 적합성	○	○	
	신입사원의 핵심역량별 만족도			○
기타	교양교육과정 개편시 가장 고려해야할 점	○	○	
	개선사항 의견 기술	○	○	
	4차산업혁명시대 신입사원의 직업기초능력			○

3.3 자료처리 방법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한 자료는 응답 내용의 결측치를 제거한 후, 입력된 자료가 분석 가능하도록 코딩하였다. 조사대상별 설문문항의 신뢰도(cronbach α) 분석결과, 학생 .941, 교원 .677, 기업체 .901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인구학적인 배경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설문문항에 대해 집단간 평균 차이분석을 살펴보기 위해 t검증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한 변수의 범주에 따른 다른 변수의 빈도와 비율은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본 연구는 교양교육과정 개편 방향을 도출하여 그 결과를 교육과정에 편성하고자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교양교육목표,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체계, 핵심역량, 교육과정 개편시 고려할 점 등 살펴보고, 미래사회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업체의 요구에 조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목표, 교육과정, 핵심역량, 4차 산업혁명시대 직무역량 등을 살펴보았다.

4.1 교양 교육목표 설정

현재 설정된 교양 교육목표가 급변하는 미래사회 변화에 적합한지 분석한 결과, 학생은 3.52(.972), 교원은 3.78(1.100), 기업체는 3.73(.741)으로 학생이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편하고자 하는 교육목표가 미래사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적합한지 분석한 결과, 학생은 4.01(.763), 교원은 3.83(.927), 기업체는 4.06(.733)으로 학생과 기업체 인사담당자들은 교원보다 새로운 교육목표인 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능력 배양, ② 미래위협사회와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능력 배양, ③ 불교의 이상 세계를 실현하는 인성 능력 배양, ④ 다방면 조화 능력 배양, ⑤ 다문화적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배양 등이 미래사회 변화에 적응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교원, 기업체 인사담당자들은 전체적으로 기존 교양 교육목표(3.58)보다 새로운 교양 교육목표가 미래사회 변화의 적응에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교육목표에 대한 대상별 평균차이 분석

구분	학생		교원		기업체		전체		F
	M	SD	M	SD	M	SD	M	SD	
기존 교육목표	3.52	.972	3.78	1.100	3.73	.741	3.58	.944	5.627**
개편 교육목표	4.01	.763	3.83	.927	4.06	.733	3.99	.802	3.459*

* p<.05, ** p<.01

<표 5> 교육목표에 대한 대상별 평균차이 분석

구분	학생		교원		산업체		전체		F
	M	SD	M	SD	M	SD	M	SD	
기존 교육목표	3.52	.972	3.78	1.100	3.73	.741	3.58	.944	5.627**
개편 교육목표	4.01	.763	3.83	.927	4.06	.733	3.99	.802	3.459*

* p<.05, ** p<.01

4.2 교육과정 편성 체계

대학의 건학이념, 교육목표, 인재상, 핵심역량 등을 직접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교양필수 교육과정인 공통교양 편성 체계의 다양성에 대해 분석 결과, 학생은 3.60(1.035), 교원은 3.84(.766)로 교원이 학생보다 더 교양 교과목이 다양하게 편성되었다고 나타났다. 또한 공통교양 목표와 교과목 운영이 교수-학습활동 통해 이루기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는지 분석한 결과, 학생 3.60(.636), 교원 3.80(1.036)으로 교원이 학생보다 더 적합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양교과목 강좌 운영에 대한 이청민·정제영·양민석(2020)의 연구

에서도 교양과목에 대한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공통교양 교육과정 편성

구분	학생		교원		t
	M	SD	M	SD	
공통교양 교과목의 다양성	3.60	1.035	3.84	.766	2.049*
공통교양 목표와 교과목 운영의 적합성	3.60	.636	3.80	1.036	2.122*

* p<.05

공통교양 목표를 토대로 개설된 교과목 적합성을 분석한 결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학생은 47.2%, 교원 35.4%로 학생이 더 적합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생은 ‘부적절하다’가 18.6%, 교원은 공통교양 목표를 달성하기에 ‘중복된 영역이 있다’가 32.9%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가집단 회의를 걸쳐 개설된 교과목 중, 강의목표 및 내용이 중복되어 운영된 경우, 협의를 거쳐 혁신적인 교수법을 적용한 교과목으로 편성하고 기존 교과목은 폐지²⁾하였다.

<표 7> 공통교양 목표와 교과목 운영의 적합성

구분		학생	교원	계	χ^2
적절	N	286	29	315	
	%	47.2	35.4	45.8	
중복	N	97	27	124	
	%	16.0	32.9	18.0	
새로운 영역 필요	N	103	19	122	
	%	17.0	23.2	17.7	

2) <표 14>에서 중영역인 ‘미래위험사회와 안전’과 ‘21세기시민’에서 각각, 「미래환경과 위험사회」와 「지구·환경·공생」교과목이 이에 해당한다. 전자가 새로운 교과목이고 후자가 폐지된 교과목의 대표적 예이다.

부적절	N	113	2	115
	%	18.6	2.4	16.7
기타	N	7	5	12
	%	1.2	6.1	1.7
계	N	606	82	688
	%	100	100	100

*** p<.001

기업체의 경우 급변하는 미래사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필요한 교양교육과정 영역별 선호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인성덕목 관련 영역’ 4.05(.8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초능력 영역’ 3.97(.735), ‘도구·기술적 관련 영역’ 3.88(.713), ‘개별 전문 실무 관련 영역’ 3.86(.760), ‘융복합능력’ 3.67(.779) 순으로 나타났다. 미래사회 변화를 기쁘하고 준비하는 데 있어 과학적인 기술 및 전문적인 지식의 습득보다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성찰하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함양하는 인성덕목 관련 영역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김은주·성명희(2016)의 연구에서도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 중 인문학적 소양의 하위영역 중 도덕성 및 윤리의식, 인성함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업체의 요구인 인성덕목 관련 영역을 교양교육과정에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은 졸업 후의 사회적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산학 간의 미스매치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8> 교양교육과정 개설 영역

영역	하위영역	M	SD
인성덕목	신뢰성, 도덕성, 에티켓, 대인관계, 성실성, 적극성, 규범 준수, 책임성, 서비스 정신	4.05	.828
도구·기술적 능력	외국어능력, 컴퓨터기술, 데이터 분석 능력	3.88	.713
기초능력	사고력,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3.97	.735
개별 전문 실무 능력	실무적 전문 능력	3.86	.760
융복합능력	지식의 다학문성 기반 융합능력	3.67	.779
전체		3.89	.570

4.3 교육과정 이수 체계

단과대학별 공통교양 교과목 지정 이수에 대한 분석 결과, 학생은 3.41(1.199) 교원은 3.76(1.025)으로 교원이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교양의 집중이수에 대한 분석 결과, 학생은 4.16(.973), 교원은 3.90(.907)로 학생이 교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학에서 학생들은 학업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교양 교과목을 집중하여 깊게 배울 수 있는 학사제도를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20학년 기준으로 교양필수 이수학점이 적절하지 분석한 결과, 3.00(1.154)으로 나타났으며, 영어 이수학점의 축소는 3.96(1.231)로 나타났다. 이는 입학 후 실시하는 레벨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설되는 강좌가 상위그룹 개설 수가 많으며, 국내 주요대학보다 이수학점이 많은 것에 대해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교양교육과정의 개편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표 9> 교육과정 이수 체계

구분	학생		교원		t
	M	SD	M	SD	
단과대학별 공통교양 지정 이수	3.41	1.199	3.76	1.025	2.510**
공통교양 집중이수제	4.16	.973	3.90	.907	-2.288*
필수 이수학점의 적절성+	3.00	1.154			
영어 이수학점의 축소+	3.96	1.231			

*p<.05, **p<.01,

+학생만 실시

4.4 핵심역량

4.4.1 핵심역량의 중요도

핵심역량의 중요도에 대한 대상별 분석 결과, 전체 평균은 교원이 4.43(.37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생 4.21(.573), 기업체 3.49(.517)로 나타났다. 핵심역량별로 살펴보면 학생은 ‘자기개발 및 관리역량’과 ‘의사소통역

량'이 각각 4.28(.751, .763), 교원은 '의사소통역량' 4.77(.479), 기업체는 '의사소통역량' 4.11(.782)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생은 '대인관계역량' 4.15(.823), 교원은 '정보기술활용역량' 4.24(.639), 기업체는 '창의융합역량' 3.50(.751)으로 핵심역량 중에서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학생, 교원 그리고 기업체 모두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 언어 표현을 이해하고 우호적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도한 바와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역량'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경수·권순철·고보종(2015)의 연구결과에서도 학생들은 자기관리역량, 대인관계역량 그리고 의사소통역량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핵심역량의 중요도에 대한 대상별 평균차이 분석

구분	학생		교원		산업체		F
	M	SD	M	SD	M	SD	
대인관계역량	4.15	.823	4.48	.549	4.05	.771	93.356***
자기개발 및 관리역량	4.28	.751	4.38	.601	3.86	.697	
의사소통역량	4.28	.763	4.77	.479	4.11	.782	
글로벌역량	4.22	.753	4.28	.742	3.68	.845	
정보기술활용역량	4.19	.770	4.24	.639	3.73	.728	
창의융합역량	4.16	.788	4.45	.651	3.50	.751	
전체	4.21	.573	4.43	.378	3.49	.517	

*** p<.001

4.4.2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의 적합도

공통교양에 편성된 교과목은 핵심역량을 함양하기에 타당하지 분석한 결과, 학생은 3.42(.916), 교원은 3.87(.750)로 교원이 더 타당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대학은 매 학기 개설되는 전체 교양 교과목 대상으로 6대 핵심역량 중 가장 타당한 핵심역량을 설정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에 담당교원이 해당학기 강의계획서 작성 시 설정하므로 학생은 자기맞춤형 핵심역량 교과목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학업계획을 설계할 수 있다.

<표 11>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의 적합도

구분	학생		교원		t
	M	SD	M	SD	
핵심역량 함양의 타당성	3.42	.916	3.87	.750	4.24***

*** p<.001

4.4.3 신입사원의 핵심역량 만족도

신입사원의 핵심역량에 대한 만족도 분석 결과, ‘대인관계역량’ 3.70, ‘의사소통역량’ 3.59, ‘자기개발및관리역량’ 3.55, ‘정보기술활용역량’ 3.44, ‘글로벌역량’ 3.42, ‘창의융합역량’ 3.25 순으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역량은 McClelland(1973)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한 이래 급속하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의 요구에 대응하는 교육과 산업현장 간의 연계에 핵심적인 개념으로 보편화되고 있다(이은화·윤소정·허승희, 2011). 이에 인사담당자들은 신입사원들의 직무능력 중 다양한 인간관계와 사회적 상황 속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여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대인관계역량에 가장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신입사원의 핵심역량 만족도

구분	M	SD	비고
대인관계역량	3.70	.749	
자기개발 및 관리역량	3.55	.698	
의사소통역량	3.59	.733	
글로벌역량	3.42	.759	
정보기술활용역량	3.44	.698	
창의융합역량	3.25	.683	
전체	3.49	.517	

4.5 기타

4.5.1 교양교육과정 개편 시 고려할 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양교육과정을 개편할 때 학생과 교원이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분석할 결과, 학생은 교양필수 교육과정인 ‘공통교양 교과목 편성 및 이수 체계’가 51.0%, 교원은 교육활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교양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교양교육목표’를 36.6%로 가장 많이 나타냈다.

<표 13> 교양교육과정 개편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학생과 교원의 인식 차이

문항		학생	교원	계	
교양 교육목표	N	41	30	71	45.95***
	%	6.8	36.6	10.3	
공통교양 교과목 편성 및 이수 체계	N	309	23	332	
	%	51.0	28.0	48.3	
일반교양 교과목의 다양성	N	173	22	195	
	%	28.5	26.8	28.3	
혁신적인 교수법 적용	N	62	6	68	
	%	10.2	7.3	9.9	
기타	N	21	1	22	
	%	3.5	1.2	3.2	
전체	N	606	82	688	
	%	100.0	100.0	100.0	

*** p<.001

4.5.2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신입사원 직업기초능력

교양교육을 통해 함양되어야 할 신입사원의 직업기초능력별 중요도 분석 결과, 대인관계능력 4.05(.740), 문제해결능력 4.00(.766), 의사소통능력 3.97(.807), 공감과 배려능력 3.92(.768)로 전체 평균보다 높게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 3.78(.753)보다 다소 낮지만 정보능력 3.76(.741), 자원관

리능력 3.67(.779), 자기개발능력, 글로벌트렌드능력, 융복합사고능력은 각각 3.62(.690, .857, .846), 수리능력 3.57(.723)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체에서 신입사원들의 직업기초능력은 전반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김종규·원만희(2018)의 연구결과에서도 동일하게 상위수준에서는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순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기업체에서는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등을 다른 직업기초능력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신입사원의 직업기초능력 분석

구분	하위영역	N	SD
의사소통능력	문서이해력, 문서작성능력, 경청능력, 의사표현능력, 기초외국어능력	3.97	.807
수리능력	기초연산능력, 기초통계능력, 도표분석능력, 도표작성능력, 수리추론능력	3.57	.723
문제해결능력	분석적사고력, 문제처리능력	4.00	.766
자기개발능력	자아인식능력, 자기관리능력, 경력개발능력	3.62	.690
자원관리능력	시간자원관리능력, 예산자원관리능력, 물질자원관리능력, 인적자원관리능력	3.67	.779
대인관계능력	팀워크능력, 리더십능력, 갈등관리능력, 협상능력, 고객서비스능력	4.05	.740
정보능력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능력, 정보접근능력	3.76	.741
공감과 배려능력	포용력, 고객이해능력, 정서적공감능력	3.92	.768
글로벌트렌드능력	지속적학습능력, 미래학능력, 통합적문제해이해능력(다문화이해능력)	3.62	.857
융복합사고능력	종합적사고력, 개념화능력, 지식융합능력	3.62	.846
전체		3.78	.5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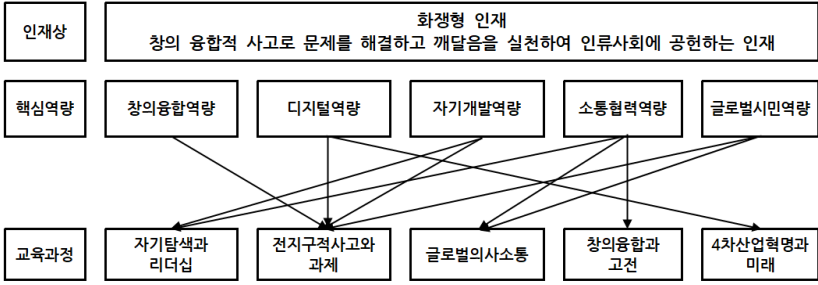
5. 적용³⁾ 및 결론

D대학교의 경우 현재의 위기를 다각적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변화와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외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에 민감하게 인식하고 어떤 교육을 통해, 어떤 인재를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했다. 따라서 2021학년 교양교육과정 개편은 건학이념 및 화쟁형 인재상⁴⁾ 정립, 4차 산업혁명 시대 및 포스트코로나(COVID-19) 이후 변화에 안전하게 적응할 수 있는 미래역량 함양에 토대를 두었다. 개편의 여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통합 요구도 조사를 바탕으로,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화쟁형 인재양성 교양교육과정을 비전으로, 교양교육기본개념(미래기회·안정, 지속가능성, 마음챙김, 다면성, 융복합성)을 새롭게 설정하고, 그에 따른 교육방향과 운영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교양의 목표 설정 및 교양교육 과정 개편의 기본 개념을 도출하여, 2021학년 교양교육과정개편 방향은 건학이념 및 인재상 정립, 4차 산업혁명 시대 및 포스트코로나(COVID-19) 이후 변화에 안전하게 적응할 수 있는 미래역량 함양에 토대를 두었다. 핵심역량과 교양필수 공통교양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그림 1]과 같이 핵심역량과 교육과정을 맵핑하였다. 개편 전에 연계한 핵심역량을 토대로, 영역별 책임교수(PD) 및 담당 교원에게 과목마다 그 타당성을 검증 받았다.

3) 교양교육과정 개편의 적용과 관련하여,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2020), 『화쟁형 교양교육과정 개발』 자료집의 내용을 참고 하였으며, 본고의 필자들도 교양교육과정 개편에 직접 참여하였다.

4) D대학교의 ‘화쟁형 인재’란 창의융합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고 깨달음을 실천하며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인재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화쟁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양교육과정 개발은 창의융합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고, 깨달음을 실천하여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인재양성을 한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학생 스스로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창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 핵심역량 기반 교양교육과정 연계

학생과 교원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 중 하나는 공통교양 편성 및 이수 체계일 것이다. 특히 이수체계의 경우는 연구결과의 요구 조사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학생들이 이수체계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여 개편의 중점에 두기도 했다. ‘자기탐색과 리더십’ 영역의 목표는 D대학교의 교육의 정신적 기초인 불교와 학생들의 지도 자적, 개척자적 심성을 가지도록 능력 배양, ‘전지구적 사고와 과제’ 영역의 목표는 글로벌 시민의식을 통해 전지구적 상황에 대한 이해력과 적응력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강조되었다. ‘글로벌 의사소통’의 목표는 말과 글을 통해 자기표현 능력에 중점을 두어 영어교육과 글의 목적에 따라 분화된 글쓰기 훈련을 통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킨다. ‘창의융합과 고전’의 목표는 학문 과 예술의 명작을 친근하게 느끼고 주의 깊게 읽는 습관을 기른다. ‘4차 산업 혁명과 미래’의 목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위험요인을 해결할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기른다고 설정하였다. 이에 해당되는 교과목은 <표 15>에서 각각 범주화하여 적용했음을 알 수 있다.

<표 15> 2021학년 공통교양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

대영역	중영역	교과목	학점	이수학점
자기탐색과 리더십	자아성찰	자아와명상1	1	4
		자아와명상2	1	
		불교와인간	2	

대영역	중영역	교과목	학점	이수학점
	대학생활탐구	커리어디자인	1	1
	기업가정신과 리더십	소셜앙트레프레너십과리더십	2	2
		글로벌앙트레프레너십과리더십	2	
		테크노앙트레프레너십과리더십	2	
전자구적 사고와 과제	21세기시민	소통, 미디어, 윤리	2	2
		다문화사회의삶	2	
		사랑,우정,관용	2	
		민주주의와시장경제	2	
	지역연구	아시아의사회와문화	2	
		아메리카의사회와문화	2	
		유럽의사회와문화	2	
		아프리카의사회와문화	2	
	미래위험사회와 안전	미래인간과위험사회	2	
		미래환경과위험사회	2	
		시장경제와위험사회	2	
		과학기술과위험사회	2	
글로벌 의사소통	글쓰기	기술보고서작성및발표	3	3
		자기표현글쓰기	3	
		실용글쓰기	3	
		학업기초글쓰기	3	
		외국인을위한대학글쓰기	3	
	영어(EAS)	Basic EAS	0	4
		EAS1	2	
		EAS2	2	
	창의융합과 고전	세계명작세미나	존재와역사명작세미나	3
경제와사회명작세미나			3	
자연과기술명작세미나			3	
문화와예술명작세미나			3	
지혜와자비명작세미나			3	
4차산업혁명 과 미래	소프트웨어	인공지능과미래사회	2	4
		컴퓨팅사고	2	
		프로그래밍입문	2	
		자율사물입문	2	
		인공지능입문	2	

대영역	중영역	교과목	학점	이수학점
		4차산업혁명과ICT융합기술	2	
계				29

2021학년 공통교양 교육과정 개편에서 공통교양 이수학점 축소는, D대학의 경우, 교양교육과정 개편 관련하여 공통교양 이수학점 31점이 적절한지 분석한 결과 적절하다(매우적절하다 또는 적절하다)가 25.3%로, 학생들은 교양필수 이수학점이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영어(EAS) 이수학점 조정에 대한 의견 조사결과, ‘필요하다’가 60.8%로 나타났다. 이에 요구 결과와 주요대학의 이수 체계를 반영하여 영어 이수학점을 기존 6학점에서 4학점으로 축소하기도 하였다.

통합 요구도 조사를 통한 결과를 일정 반영한, 교양교육과정 개편은 대학 교육목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목표와 기업의 요구도와 교육내용 및 제도와의 정합성이 일치하는 면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대학에서 미래교육 및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준비 작업이 기업의 요구도 항목인 의사소통능력(사회성), 인성교육과도 상통하였다. 또한 학습자를 위하여 교양수업의 질 재고와 교육의 수준을 현재보다 더 높이기 위한 개편 목적도 반영되었다. 이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목적으로 학생들이 수강 과목에 대한 흥미와 지적호기심을 자극하고, 선제적으로 교양수업에 대한 불만을 불식시키고, 교양기초교육 수업을 참여적이고 상호작용적으로 이끌 수 있는 수업방법 유형을 교수자가 모색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각 주체의 요구도가 일정정도 반영되어 적용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교양교육과정 개편을 위해 먼저 선행되었던 연구도구로서 요구조사 항목으로 학생의 경우 총 13항목, 교수자 총 12항목, 기업체의 경우 총 5항목을 면밀히 수요조사 하였다. 이와 같은 광범위한 조사는 어느 한 주체에 편중되지 않게 반영되어, 교양교육과정 개편에 있어 기본적인 방향을 잡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통합 요구 조사의 결과는 D대학교의 공통교양 목표 및 역량, 교과목 개발, 이수 학점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일정정도 반영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 또한 광범위한 항목에 대한 수요 조사를 통하여, 교양교육과정 개편이 어느 한 주체에 의한 요구가 중점적으로 반영 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교수자, 기업체(사회)의 통합적인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각 대학은 새로운 교양교육을 정립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의 경쟁력을 갖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교양교육개편의 진행 방향도 통합적인 요구도 조사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각 교과목 개편에 대한 내용은 지면상 한계로 상세히 다루지 않았지만, 이는 차후 연구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 김남희·정미애, 2018, 「대학 교양교육의 인식, 만족도 및 학습성과로서의 학습역량 측정」, 『교양교육연구』 12(6), 한국교양교육학회, 41-66.
- 김은주·성명희, 2016, 「대학생의 대인관계 역량과 글로벌 역량 함양을 위한 핵심역량 기반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핵심역량교육연구』 3, 한국핵심역량교육학회, 213-237.
- 김종규·원만희, 2018,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학 교양교육의 개선 방향 연구 - 대학 교육에 대한 산업계 수요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인문과학』, 68, 147-176.
- 도승연·박지희, 2020, 「한국 교양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한 제언-고등교육증장기 정책 방 연계한 미래 학문으로서의 교양교육의 역할」, 한국교양기초교육원 (<http://konige.kr>) 자료, 1-17.
-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2020, 「교양교육과정 개편 수요 조사」, 『화쟁형 교양교육과정개발』 자료집, 57-77.
- 박혜정, 2018, 「핵심역량 기반 대학 교양교육 과정 설계 모형 연구」, 『교양교육연구』 12(2), 한국교양교육학회, 65-87.
- 변상철·김현숙, 2020, 「대학 교양교육의 심화발전 방안에 대한 재고-D대학교 클라 시키자유학'고전교육'교과목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4(2), 한국교양교육학회, 99-113.
- 백평구, 2012, 「교양교육 만족도, 교육적 경험, 학습 성과에 대한 인식, A대학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6(1), 한국교양교육학회, 431-466.
- 신철균·변혜영·여성민·김성목, 2020, 「학생·교원의 교양교육과정 인식 및 요구 분석 - A대학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4(3), 한국교양교육학회, 217-231.
- 윤유진, 2020,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대비한 대학의 교양교육의 만족도 및 요구도 조사」, 『교양교육연구』 14(2), 한국교양교육학회, 311-325.
- 이은화·윤소정·허승희, 2011, 「대학의 직업기초능력 교육에 대한 교수와 학생의 인식차이: A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직업교육연구』 30(4), 한국직업교육학회, 51-67.
- 이청민·정제영·양민석, 2020, 「대학 교양교육과정의 운영과 내용에 대한 학습자

- 교양요구도 분석, 『교양교육연구』 14(5), 한국교양교육학회, 109-121.
- 이효성·차성현, 2020, 「핵심역량 함양과 수업 질 제고를 위한 교양 교육과정 개편 방안 탐색 - C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4(6), 한국교양교육학회, 253-265.
- 황경수·권순철·고봉조, 2015, 「대학생들의 핵심역량 인식 분석-J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양교육연구』 9(3), 한국교양교육학회, 131-162.

Analysis of Integrated Needs and Research on Reform of General Education Curriculum

Nam, Jinsook & Go, Eunsun
(Dongguk University)

This study is the result of reorganizing the general education curriculum of D University by analyzing the integrated needs of students, teachers, and companies prior to the reorganization of the general education curriculum.

The demand survey items that were preceded for the reform of the general education curriculum were carefully surveyed on a total of 13 items for students, 12 items for instructors, and 5 items for compani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educational goals, teachers perceived that the currently set general education goals are more suitable for cultivating students' ability to change in the future society, whereas companies recognized that the reorganization educational goals are more appropriate. Second, teachers recognize that the current curriculum organization system is more suitable than students, and in the case of companies, it is founded that the areas related to personality virtues is most preferred when organizing the curriculum. Third, with regard to the curriculum completion system, students preferred the reduction of required credits for liberal arts and the intensive completion system, which is a flexible academic system. Fourth, in the case of core competencies, communication competency was found to be the most important, and it was highest in companies. Fifth, when reorganizing the general education curriculum, it was

found that students would most likely consider the common general education organization and completion system and teachers would consider the educational goals. The interpersonal competency including teamwork ability, leadership ability, and customer service capabilities was the highest in the basic job competencies of new employees who joined a company.

These results suggest that it is very important to reflect opinions without being biased in the direction of reform of the general education curriculum. In addition, in the case of D University in the actual reform of the general education curriculum, it is meaningful in that the results derived from the integrated demand survey were systematically reflected.

Keyword ● Survey on general education needs, general education goals, general education Curriculum organization and completion, Core competencies, Basic job competency

■ 논문투고일 : 2022. 12. 4. ■ 심사완료일 : 2022. 12. 11. ■ 게재확정일 : 2022. 12. 12.